

# 동구 공직자 500여명 '천원 식당' 정기후원 '훈훈'

### 대인시장 '해뜨는 식당' 영업 위기 극복 동참 한 뜻 일평균 130여명 식사 제공... "지역사회 온정 절실"

광주 동구 공직자 500여명이 대인시장의 천원 밥상 '해뜨는 식당'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매월 1천원씩 정기 후원에 나서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10일 동구에 따르면 공직자 500여명이 자발적으로 이달부터 월급에서 1천원씩을 '해뜨는 식당'에 정기 후원하기 시작했다. '해뜨는 식당'은 고(故) 최선자씨가

끼니를 거르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끼를 대접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문을 열었다. 밥과 함께 제공되는 국과 세 가지의 반찬은 '매일같이' 바뀌지만, 가격은 개소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 없이' 1인당 1천원이다. 인건비는 제쳐두고 재료비만 따져 보더라도 수지타산이 맞을 수 없는 가격이지만, 이를 받는 이유는 손님들이 눈

치 보지 않고 식사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 같은 선행으로 제2회 동구민의 상을 수상하기도 한 최선자씨가 지난 2015년 별세하자 고인의 자녀인 김윤경씨가 그 뜻을 이어받아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4개 테이블에 최대 16명이 동식할 수 있는 '해뜨는 식당'은 매주 월-토요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한다.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 전역의 돌봄이웃들이 식당을 찾아 하루 평균 130여명이, 무료 급식소가 쉬는 날 등 많은 때는 180여명이 한 끼를 해결한다.



광주 동구 공직자 500여명이 이달부터 대인시장에 위치한 천원 밥상 '해뜨는 식당'에 매월 1천원씩 정기 후원에 나섰다. 사진은 '해뜨는 식당' 앞 전경. <광주동구 제공>

손님이 많을수록 손해를 끼치는 구조이지만, '경기 침체'와 함께 '일반 사람'인 탓에 기업이나 단체의 기부금

처리가 불가능한 게 맞물려 최근 후원이 크게 줄었다. 식자재 비용과 공과금 같은 고정 지출액도 노는 등 '운영난 심화' 소식을 접한 동구 공직자들은 2대째 이어오고 있는 해뜨는 식당의 영업 위기 극복을 위해 뜻을 모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천원밥상 '해뜨는 식당'은 우리 구의 소중한 민간 복지 자산"이라며 "힘겨운 일상을 딛고 사는 돌봄이웃들의 보금자리가 돼주던 식당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직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천원의 기적을 펼쳐줘 감사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정은정기자



광주 광산구 '1313 이웃살핌' 사업을 통해 오키리나 수업에 참여 하고 있는 장애인 남매(사진 왼쪽)와 고위험 가구 마을 환경정화에 나선 봉사자들. <광주광산구 제공>



광주 광산구 '1313 이웃살핌' 사업을 통해 오키리나 수업에 참여 하고 있는 장애인 남매(사진 왼쪽)와 고위험 가구 마을 환경정화에 나선 봉사자들. <광주광산구 제공>

## 30대 장애인 남매 세상으로 이끈 '1313 이웃살핌'

### 광산구 '이웃지기 1명, 위기가구 3세대 발굴' 시책 민·관·산·학 상호돌봄망 구축 목표...전역 확대 예정

광주 광산구에서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오던 30대 남매가 '1313 이웃살핌' 사업 덕에 세상으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광산구에 따르면 송정1동에 거주하는 한 장애인 남매(각각 30대)는 요즘 '바깥 생활' 재미에 푹 빠졌다. 앞서 집 밖으로 좀처럼 나오지 않던 이들 자매는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물론, 안부를 살피러 간 이들에게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 등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송정1동 이웃지기들은 포기하지 않고 남매의 집을 꾸준하

찾는 등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이웃지기들의 진심이 전달되면서 마침내 문 밖으로 나온 남매는 최근 다른 이웃들과 함께 마을 대청소에 참여하거나 함께 오키리나를 배우는 등 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 남매를 사회로 나오게 한 이웃지기들의 활동은 광산구의 1313 이웃살핌 사업의 일환이다. 1313 이웃살핌 사업은 이웃지기 1명이 위기가구 3세대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1세대에 이웃단짝 3명을 연결해 돌본다는 의미로 민·관·산·학 협력을 바

탕으로 한 상호돌봄망 구축이 목표다. 현재 지역 내 고립 위험 가구는 1천200여명으로 광산구는 지난해부터 지역사회회보장협의체, 자활센터, 선한기업100+원탁회의, 호남대학교 등 다양한 기관·단체와 특별업무팀(TF)을 구성해 '1313 이웃살핌' 사업을 계획·추진해 왔다. 광산구는 시범 사업 중인 송정 1동을 시작으로 고위험군 거주 비율이 높은 12개 동을 선정, 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22개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병구 광산구청장은 "1313 이웃살핌은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막는 혁신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며 "고립가구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극복하고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옥근기자

## 북구, '소상공인 초기 창업패키지' 참여자 모집

### 올해 신규 100곳 대상...홍보 물품·광고 지원

광주 북구는 10일 "소상공인 초기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초기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경험이 부족한 신규 창업 소상공인의 시장 진입을 도모하기 위해 북구가 경영을 지원하는 시책이다. 올해 창업패키지는 사업장별 소개 문구를 부착한 ▲천연수세미 ▲대나무

칫솔 등 업체 홍보 물품 2종과 ▲인스타그램 타깃 광고 ▲홈페이지형 블로그 ▲유튜브 홍보영상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전광판·간판·포스터 등은 ·오프라인 마케팅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다. 북구는 참여 업체로 선정된 소상공인에 업체당 홍보 물품 2종을 180개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마케팅 광고 콘텐

츠 1개를 맞춤형으로 제작,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종료 후에는 참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주요 의견 등을 다음 해 사업에 반영해 만족도를 지속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북구 지역에 창업한 소상공인 100개 사업장이다. 참여 희망자는 북구청 누리집 소통광장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소상공인종합안내센터(북구청 1층) 방문 또는 이메일(onthesunset@korea.kr)의 방법으로 신청순 제출하면 된다. /안재영기자

## 서구, 지방세정 평가 2년 연속 '우수'

광주 서구는 10일 "2년 연속 '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광주시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지방세·세외수입 10개 분야 52개 지표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다. 지난해 실적을 살핀 이번 평가에서 서구는 지난해에 이어 '우수' 자치구로 선정돼 인센티브 9천만원을 확보했다. 지방세 징수실적 제고와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과세자료 분석 및 정확한 부과 고지 ▲미납 즉시 전권 재산조회 후 압류 ▲고질·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무 1·2차 전 직원 책임징수제 실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체 징수보고회 및 직원토론회워크숍 ▲분납 및 자진납부 유도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성학기자



## 남구, 노후주택 20곳 '희망주택 리모델링'

광주 남구는 10일 "올해 말까지 '희망주택 리모델링'(사진) 사업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20세대의 노후 주택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쌓인 성금과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금액까지 총 4천만원이 투입된다. 세대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돌봄이웃 가운데 주택수리가 필요한 가정이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태 등을 파악한 뒤 우선 순위를 선정, 정비에 나선다. 이와 함께 남구는 다음 해에도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관내 기업체의 재능기부와 후원금, 물품을 모으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주성학기자

그린알로에

#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